

미국 JOLTS: 구인 반등에도 채용·이직 동반 감소, 저채용·저해고 국면 뚜렷

2026.09.0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7월 구인·이직 통계는 구인건수 증가라는 표면 숫자와 달리 채용과 자발적 이직이 함께 줄어든 저채용·저해고형 노동시장 둔화를 보여주며, 이는 추가 금리 인상 논거 가운데 노동시장 축을 약화시킨다.

구인·이직 보고서는 기업의 채용 계획(구인), 실제 채용,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이직, 기업이 내보내는 해고를 함께 보여주는 지표로 노동시장 온도를 가늠하는 핵심 자료다. 직전 6월 자료는 구인이 줄고 채용은 늘어나는 조합이어서 과장된 채용공고가 정리되며 매칭 효율이 개선되는 신호로 해석됐고, 이 흐름이 다음 달에도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었다.

7월 발표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채용이다. 실제 채용은 505만 4천 건으로 한 달 새 27만 8천 건 줄었고, 채용률도 3.4%에서 3.2%로 낮아져 전월뿐 아니라 전년 동월도 밑돌았다. 자발적 이직도 305만 6천 건으로 15만 7천 건 줄어 채용과 거의 같은 폭으로 함께 감소했다. 반면 가장 널리 인용되는 구인건수는 727만 1천 건으로 8만 9천 건 늘었지만, 이를 노동 수요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난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6월 구인 수준이 17만 7천 건 하향 수정되며 낮아진 기준선 위에서 나온 반등인 데다, 늘어난 곳도 내구재 제조업과 지방정부, 보건·사회복지 업종에 국한됐고 운수·창고와 전문·기업서비스, 레저·숙박업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전문·기업서비스는 구인·채용·자발적 이직·해고 네 항목이 모두 감소하며 전방위로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고, 전국 채용 감소분의 대부분이 이 업종에서 나왔다. 해고는 166만 6천 건으로 11만 9천 건 줄어 전년 동월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채용도 해고도 함께 위축된 저채용·저해고 국면으로 읽는 것이 정합적이다.

현재 정책금리는 3.50~3.75%에서 동결 중이며 시장은 9월과 12월 회의에서 인상 가능성을 각각 69%, 90%로 우세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번 채용·이직 동반 감소는 임금과 이직을 경유해 물가가 재가속할 경로를 약화시키는 신호로, 추가 인상을 정당화하는 논거 가운데 노동시장 과열이라는 축을 깎아낸다. 다만 인상 프라이싱을 지탱하는 핵심 근거는 여전히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 3.3%로 대표되는 물가 재가속 축이며, 이번 발표 하나만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이번 결과는 앞서 확인된 7월 비농업 고용 부진, 5~6월 고용 하향 수정, 낮은 수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흐름과 같은 방향에서 노동시장 둔화 그림을 하나 더 보탠다.

9월 29일 공개될 8월분 통계에서 전문·기업서비스 채용이 90만 건대에 머무는지, 전국 채용률 3.2%가 유지되는지가 이번 둔화가 일회성인지 추세인지를 가를 다음 확인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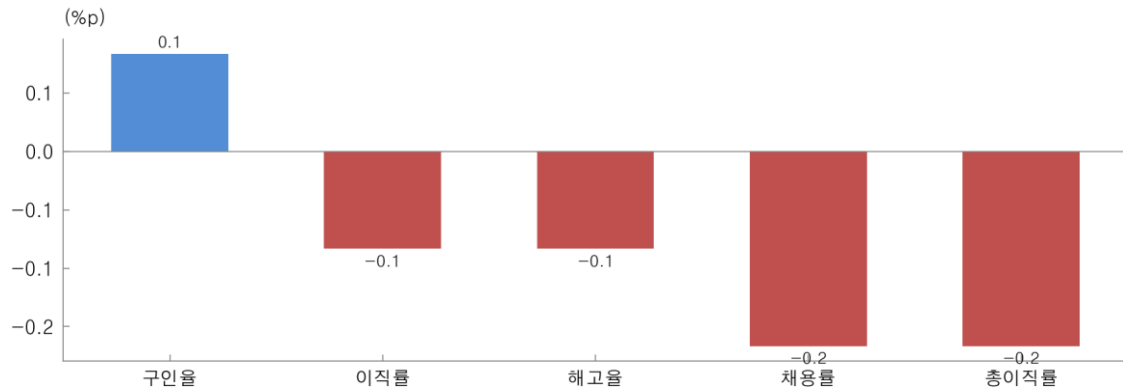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1 (이번)	2026 년 7 월 미국 구인·이직·해고 통계(JOLTS)는 채용과 이직이 함께 줄어드는 '저채용·저해고' 국면으로의 회전을 둔화를 보여준다. 구인 건수 반등이라는 표면적 지표만 보고 노동 수요가 되살아났다고 읽어서는 안 되며, 이번 발표는 연준의 추가 인상 논거 가운데 노동시장 축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
2026-08-04	2026 년 6 월 미국 구인·이직 보고서(JOLTS)는 구인이 줄고 채용은 늘어난 조합을 보였다. 구인 총량은 완만히 정리됐지만 채용 실행은 오히려 살아났고, 해고는 확대되지 않았다.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는 소폭 열어졌지만, 순수하게 늘어난 일자리 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최근 발표치가 전월 수정으로 흔들린 값이라는 점
2026-06-30	구인·채용 명목 정체 뒤 숨은 구성 악화: 수급 괴리 심화(1.47 배), 이직 악화, 해고 반등의 삼중 신호로 기업과 근로자의 심리 동시 악화 가시화 — 우리 팀의 "크레딧 스프레드 경보"와 정합하는 고용 동인 악화.
2026-06-02	구인(7.6M)은 큰 고점을 유지했으나 채용(5.1M)이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수급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둔화 방향의 No-Landing 을 시사합니다.

7 월 JOLTS 핵심 지표 — 구인 반등 vs 채용·이직 동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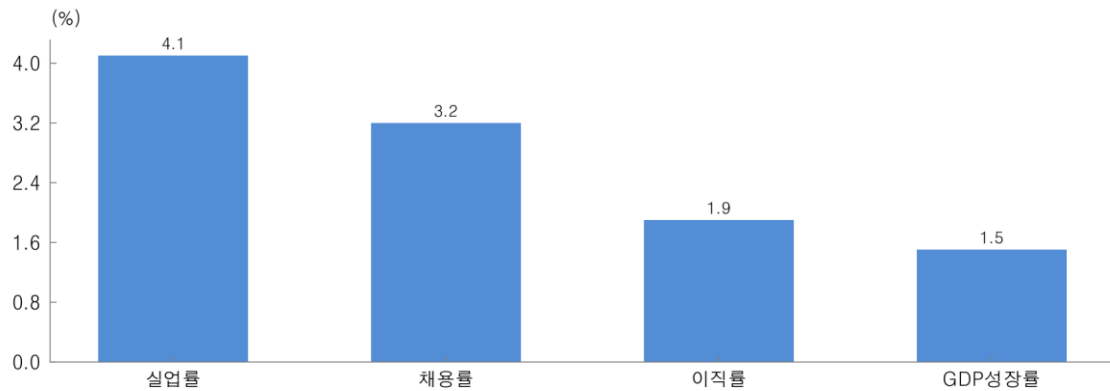
지표	7 월(속보)	6 월 대비	전년동월(2025.7) 대비	맥락
구인 건수(전체)	727.1 만 건	+8.9 만 건	+18.2 만 건	제조업·주지방정부·보건업 주도, 서비스업은 오히려 감소
채용 건수(전체)	505.4 만 건	-27.8 만 건	-17.1 만 건	전문·기업서비스 감소가 전국 감소분의 대부분
채용률(전체)	3.2%	-0.2%p	-0.1%p	전월·전년 모두 하회, 이번 발표에서 가장 뚜렷한 방향
총 이직 건수(전체)	507.2 만 건	-26.5 만 건	-9.8 만 건	채용과 비슷한 폭으로 동반 감소
자발적 이직(quits, 전체)	3.1 백만 건(반올림)	6 월 3.2 백만 건에서 감소	-	숙박·음식점·전문서비스 업종에 편중된 감소
해고·감원(전체)	1.7 백만 건(반올림)	6 월 1.8 백만 건에서 감소	-	저채용과 동시 발생한 저해고, 견조함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전문·기업서비스 채용	90.0 만 건	-18.8 만 건	-14.7 만 건	전국 채용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
전문·기업서비스 채용률	4.0%	-0.8%p	-0.7%p	구인·채용·이직·해고 네 지표 모두 감소, 전방위 냉각

JOLTS 5 대 비율 전월비 변화폭(%p, 7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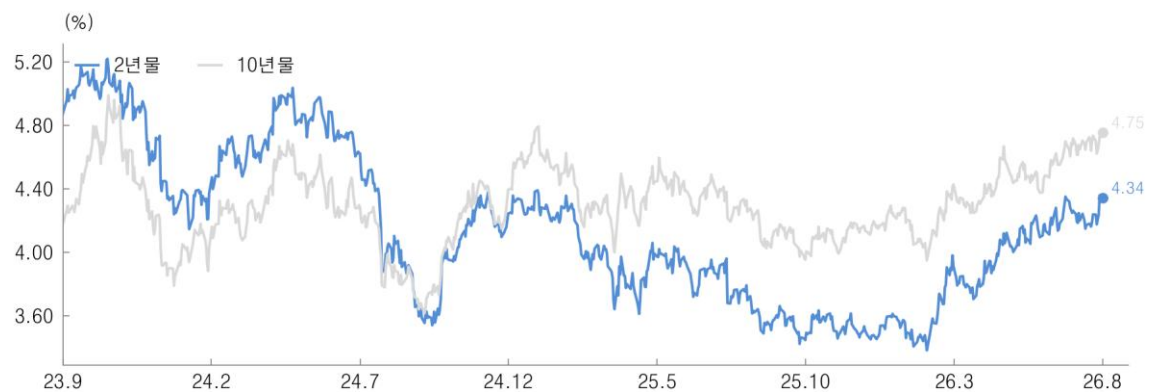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JOLTS 회전율 vs 거시지표 비교(% , 7 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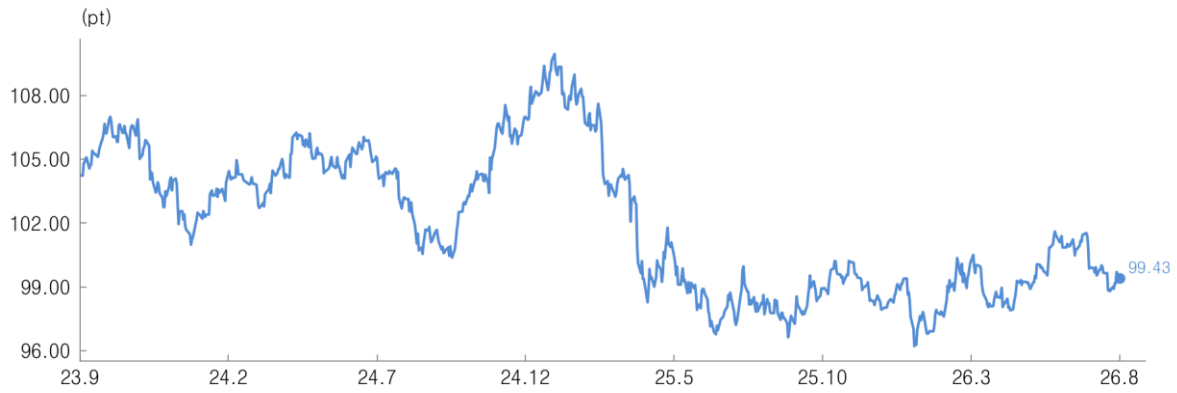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